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집단 따돌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 “복수 또는 개인이 약자를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신체적·정신적 공격”으로 개념 지워질 수 있는¹⁾ ‘집단 따돌림’ 현상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웃 일본 혹은 유럽의 선진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들 나라의 특이한 문화 풍토병 정도로만 간주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집단 따돌림’에 관한 논의가 매스컴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이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도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²⁾

‘집단 따돌림’ 현상은 언제인가부터 우수개 소리로 ‘아주 큰 것’, ‘으뜸’, ‘우두머리’의 뜻을 갖는 접두어 ‘왕-’이라는 말과 어울려져 ‘왕 따돌림

1) 최충욱, “청소년기 왕따 현상의 실태와 대응 방향,” 청소년 왕따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홍사단 <민주시민의 열린 마당 제 11회 금요토론회>, 1999. 7.(미발간자료).

2) 1998년 이후 ‘집단 따돌림’을 주제로 하여 실시된 세미나 혹은 연구 프로젝트 자료 중 몇 가지만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춘재, 광금주,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아산사회복지재단, 1999; 왕따·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일본 동경 국제대학 T.Takuma 교수 초청 한·일 학술대회,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집단 따돌림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육대학교 종합연수원, 1999; 청소년 집단 따돌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가정법원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1999; “왕따”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광명시청소년 상담실, 1999;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1998; 전라북도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전라북도청소년종합상담실, 1999.

혹은 왕따'라는, 약간은 희화화된 말로 불리게 되었다. 이 말은 '최고의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엄청나게 따돌림을 당하는 집단성원' 혹은 '따돌림 현상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러한 '왕따' 현상은 아이들 집단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인 집단, 예를 들면 직장이나 사회 단체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회 일반 현상이 되었다.³⁾

학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사회 여러 영역에 걸쳐 '집단 따돌림' 현상이 넓게 퍼지고, 이러한 현상을 묘사하는 말로 '왕따'가 널리 사용되게 됨에 따라 '왕따'라는 말은 1998년도를 강타한 신조어로 선정되기고 하였고,⁴⁾ 더 나아가 따돌림의 정도와 방식에 '왕따'로부터 더 많은 은어들이 파생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집중 따돌림'을 의미하는 '집따', '은밀한 따돌림'을 나타내는 '온따', '전체 따돌림'을 나타내는 '전따', '개인적으로 따돌림'을 나타내는 '개따', '평생 따돌림'을 나타내는 '평따'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⁵⁾

'집단 따돌림' 현상은 그 양상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생 빈도에 있어서도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 발생 빈도에서의 심각성의 정도는 최근에 이루어진 '집단 따돌림'에 관한 몇 개의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⁶⁾ 그 양상에 있어서 다

3)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7%가 "직장 내 왕따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또 응답자의 41.8%가 실제 왕따를 경험했거나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왕따를 시키는 유형으로 휴연 티타임 회식 자리에 끼워주지 않는 방법을 제일 쉽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2.1%). 한국경제신문(사회) 1999. 3. 16.

4) 한계레신문(사회), 1998.12.28

5) 이기문·김진희, 혹시 우리 아이 왕따 아닐까, 서울: 국일미디어, 1999. pp. 22~23.

6) 광명시청소년상담실이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2.3%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따돌린 경험을 갖고 있으며, 16.5%가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주성욱, "광명시 청소년 왕

양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밝혀진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인간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예외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 만연되어 있는, 일반적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사회문제의 하나인 ‘집단 따돌림’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청소년 비행과는 구별되어 그 예방과 지도가 쉽지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집단 따돌림’은 1)지속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서 접촉 자체의 차단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2)다양한 형태로 일상화되어 있어 구체적 실상이나 증거를 포착하기가 힘들며, 3)차후의 보복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 측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은폐하고자 하며, 4)보다 결정적으로는 다수의 소수에 대한 행위라는 점에서 잘못을 피해자 측에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사는 물론이요 가정에서 부모형제를 포함한 피해자 주변인들조차 “평소 처신을 어떻게 했기에 그

따 실태조사 결과”, “왕따”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 광명시 청소년상담실, 1999.6.29. p.8: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중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분석연구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학생의 21.6%가 다른 친구를 따돌린 경험을 갖고 있으며, 23.9%는 다른 친구로부터 따돌림의 피해 경험을 갖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충기 외, 전라북도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전라북도 청소년종합상담실, 1999.7. pp.23~25: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도 집단 따돌림의 가해 경험자가 26.6%, 피해경험자가 18.3%로 나타나고 있다. 이춘재, 박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사단법인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 pp.9~10: 집단 따돌림에 관한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표본으로 한 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학생의 24.2%가 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박경숙(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206. (이 연구에서는 ‘왕따’를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현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렇게까지....”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반응을 견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배가시키는 경우가 많다.⁷⁾ 하지만 우리는 집단 따돌림을 결과에 준거해서 그 원인을 조금 진단하는 귀인론적 관점이 아닌, 사회 문화적 요인을 탐색해 봄으로써 그 문제 발생의 개연성을 밝히는 인과론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따돌림 현상에 대한 우리 나라의 많은 연구물들은 따돌림 현상의 사실적 파악과 그 현상이 일어나는 현장을 중심으로,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적 특성 혹은 심리적 상태 분석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돌림 현상은 ‘있을 수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확인하는 사실 규명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해석적 차원에서 함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집단 따돌림’에 대한 가치판단이 좀더 명확하게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 설득력을 갖을 수 있고 그들의 자발성을 촉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집단 따돌림’이 갖는 사회·윤리적 가치의 한계는 무엇인가? 즉 집단 따돌림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만연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유를 들어 ‘집단 따돌림’이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며, 또한 그렇지 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집단 따돌림’은 구체적 현장 속에서 당사자들끼리의 일시적이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심리적 충돌과 갈등으로만 해석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로 따돌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준비되고 예견된 상황, 즉 서로가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청소년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은 관계자(가해자 혹은 피해자)들이 갖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분석과 조직 내 인간관계의 특성 분석을 통해서

7) 김문조, 집단 따돌림(왕따) 발생의 사회·문화적 접근, 집단 따돌림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 1999(미발간자료).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향유하며 대변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 및 문화관을 함께 분석해 봄으로써 보다 더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사회성원이 나타내 보이는 심리적 특성은 그가 태어나서 양육된 사회·문화적 토양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다.⁸⁾ 그리고 모든 사회성원이 문화적 존재인 한, 따돌림 현상은 각기 다른 문화를 체득한 구성원들 간의 피할 수 없는 문화적 충돌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문화충돌로서의 따돌림 현상은 집단간의 문화 격차(결핍)(Cultural Deprivation: CDp) 아니면 집단(개인과 집단)간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 CDf)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CDp란 기능론적 관점에서 어느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퍼스널리티 형성과 발달에 필요한 요소들이 부족하거나 박탈된 상태를 의미한다.⁹⁾ 이는 곧 특정 사회성원이 그 집단의 중핵 문화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혹은 그 기준이 되는 중핵 문화 집단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 요소를 결여하고 있음에서 나타나는 상태를 일컫는다. 따라서 CDp는 지배적 문화 획일화주의(단일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문화가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CDf란 둘 이상의 문화집단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우월적 입장에 서려고 경쟁을 벌이는 상태를 일컫는다. CDf는 문화 다원주의 또는 문화 상대주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CDf에서 오는 따돌림 현상은 그 자체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관련 집단에게 문화적 상승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실제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따돌림 현상도 지나친 주류집단 문화 중심의 사회에서는 CDp에 의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 올바른 청소년 지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집단에서의 따돌림 현상이 CDp에서 기인하는가 아니면 CDf에서 오는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규명하고 있어야 한다. CDp에서 오는 것이라면 획일화된 문화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문화를

8) 이현청, 교육사회학, 서울: 양서원, 1994. p.209.

9) 석태중,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3. p.116.

받아들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Cdf에서 오는 것이라면 자기 삶의 패턴에 자긍심을 심어주며, 상대방의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는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에 관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집단 따돌림’이 갖는 사회·윤리적 가치의 한계성을 밝힌다.

둘째, 문화적 격차(결핍)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현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해 본다.

셋째, 각 유형별 ‘집단 따돌림’에 대처한 올바른 청소년 지도방안을 모색해 본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앞에서 제기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첫째,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 번지고 있는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한 연구 실태와 그러한 연구들이 갖는 의의를 제시해 보고, 아울러 그 한계점 역시 따져본다.

둘째, 문헌분석을 통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해 본다. 여기에서는 집단 따돌림이 갖는 사회·윤리적 한계를 짚어보고,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와 문화적 격차(cultural deprivation)에서 오는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의 특징을 상호·비교해 본다.

셋째, 선행연구의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집단 따돌림’을 예방 혹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정, 학교, 교외(校外) 차원에서 모색해 본다.

3. 연구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이 연구를 통한 기대 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및 청소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이 갖는 정의롭지 못한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집단 따돌림을 이에 관계되는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사회집단간의 문화적 갈등과 충돌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문화 빈곤 혹은 문화 결핍 현상의 극복을 통해 청소년 세계 속에서의 집단 따돌림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문화 경험 프로그램 도입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넷째, 학교 교사 주도의 교과 중심 활동이 아닌, 청소년 지도자 중심의 방과후 활동, 교외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문화적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그로써 집단 따돌림을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 집단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이해 교육을 활성화시킬 당위성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II. ‘집단 따돌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집단 따돌림의 개념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몇 개의 연구만을 골라서 그 내용과 결과를 예시해 보고자 한다.

1) 손충기(1999)

손충기, 『전라북도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전라북도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전라북도청소년종합상담실, 1999)에서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정의·원인·특징, 그리고 이에 관련된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등을 질문지 분석 방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이 연구는 집단 따돌림이 소위 대도시 소재 학교에서만 아니라 지방 소재 학교에까지도 널리 확산되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 결과의 주요한 내용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학급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청소년은 평균 20.5%으로 나타나고 있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② 따돌려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1.9%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역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일회성인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속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질적으로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③ 따돌림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78.0%, 교사는 80.0%, 학부모는 65.1%로 나타나, 실제 가담한 학생들보다 목격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의 특성으로 ‘잘난 체 하는 아이’가 52.6%

로 비교적 집중되어 지적되고 있으나 따돌리는 청소년의 특성으로 특별히 부각되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없다.

⑤ 따돌리는 주된 이유는 당하는 입장과 시키는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⑥ 따돌리는 방법으로는 심리적 따돌림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의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⑦ 따돌림 후의 대응방안으로는 제 3자에게 상의하거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등교하지 않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우리교육 보고서(1999)

『왕따 리포트: 왕따 실태, 원인에서 해결 방안까지』(우리교육, 1999.5)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실태·실제·원인·해결방안 등에 관하여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협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여러 통계자료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집단 따돌림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은 중학교이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② 남녀별로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여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에 따라서는 오히려 남학생 쪽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집단 따돌림의 개념에 대한 개인별, 성별 인식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동이 많은 도시에서보다는 동질성, 정착성이 강한 시골에서 집단 논리에 의한 따돌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전학 온 학생과 우등생도 집단 따돌림의 흔한 대상이 되고 있다.

⑤ 자신의 학급에 집단 따돌림 여부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상반된 반응은 학급 또는 학교 내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해 교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⑥ 집단 따돌림의 피해 유형의 종류와 그 발생 비율은 협박형 따돌림(31.4%), 소외형 따돌림(19.2%), 장난형 따돌림(18.9%), 조롱형 따돌림(11.2%), 강제형 따돌림(8.8%)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주성욱(1999)

주성욱, 『광명시 청소년 왕따 실태조사 결과 발표』(“왕따”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광명시청소년상담실, 1999)에서는 광명시 청소년의 따돌림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있다. 그 분석결과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따돌려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32.3%, 따돌림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16.5%로 나타나고 있다.

② 따돌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남학생인 경우보다 여학생인 경우가 더 많았고, 따돌림 피해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중학교에서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보다 많았다.

③ 따돌리는 방법으로는 수동적 따돌림과 능동적 따돌림이 동원되고 있음이 분석되고 있다. 능동적 따돌림이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따돌림의 표현인데 반하여 수동적 따돌림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소외시키거나 고립시키는 것이다.

④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에서는 따돌림 피해자 집단의 대인관계 지지 자원이 낮았고, 그들의 사회적 관계 기술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또래들로부터 나쁜 인상이나 혐오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따돌림의 가해자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조력자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는 그들 부모의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돌림 가해자들은 따돌림이라는 행동이 사회적 일탈 행위이며, 윤리적·도덕적 차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집단은 대인관계 지지평가에서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중간정도였으나 문제의 심각도와 상담요청 가능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집단의 특성이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따돌림의 가해자 집단과 어울려서 다른 또래에게 따돌림을 가하거나 따돌림을 가한 행동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양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4) 박진행(1999)

박진행, 『청소년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영향을 무엇인가?』(청소년집단 따돌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가정법원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1999)에서는 여러 연구자료와 상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단 따돌리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

① 집단 따돌림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 돌이켜 보면 역사상 가장 심한 집단 따돌림은 유대인에 대한 것이다.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아리아인의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을 띄고 독일 국민의 지지 아래 이루어졌다.

② 이러한 민족적 따돌림 현상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힘없는 소수에 대한 적개심과 공격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투사(projection)라는 가장 좋지 않은 방어기제가 작용하고 있다. 즉 자기자신들이 인정하기 싫은 열등감이나 나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따돌리는 모습을 띄는 것이다.

③ 집단 따돌림의 요인들로서는 개인 심리적인 요인이 크며, 그 외에도 가정적인 요인, 학교의 요인, 사회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5) 이춘재(1999)

이춘재,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실태, 집단 따돌림과 자기개념·사회적 지지·우울·피해자 사례연구 등에 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끝의 논의 부분에 언급되고 있는 몇 가지의 조사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초등학생의 경우가 중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성별로 보면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여자가, 중학교는 남자가, 전체적으로는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유형으로는 ‘욕하거나’ ‘놀리고’ ‘무시하고’ ‘헛소문을 내는’ 등의 소극적 방법에서부터 ‘위협하고’ ‘때리고’ ‘물건을 뺏는’ 적극적인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로는, 본인이 왜 따돌림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를 든 중에는 ‘잘난 체해서’, ‘분위기를 맞추지 못해서’, ‘반에 못 된 아이가 있기 때문에’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④ 따돌림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학업에 대한 자기 개념과 운동능력에 대한 자기 개념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따돌림 피해자는 공부를 잘 못하고,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학업과 운동에 대한 자기 개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따돌림의 피해-가해 집단은 부모, 급우, 교사, 친한 친구로부터 가장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상집단은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⑥ 우울정서, 의욕 및 흥미, 자기비난의 영역 및 우울 척도 총점에서 정상집단과 가해집단이 낮고,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높았다.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우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⑦ 대부분의 따돌림 피해자들의 부모나 부 혹은 모의 성격이 너무 엄격하거나 강압적이고 감정표현이 폭발적이었다. 부모의 성격이 조용한 경우에도 냉담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강압적이고 엄격한 분위기에서

잘 보호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불안하고 불안정하여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6) 이시형(1998)

이시형,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접근,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1998)에서는 따돌림의 정의, 학교에서의 따돌림의 실태와 특징, 상담사례를 통해 본 따돌림 현상, 따돌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내리고 있다. 연구 결과로서 요즘 따돌림 현상의 주요 특징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고 있다.

① 따돌림의 집요함이다. 가해학생이 끈질기게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소외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도록 만들 정도로 매우 강한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② 따돌림의 형태나 수법, 그리고 괴롭히는 언행의 내용이 매우 음습하게 이루어지고 점차 집단화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따돌림이 학생들간에 집단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교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가해학생들이 따돌림을 별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 따돌림에 동조하고 개입하는 것을 그저 한번쯤 있을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전혀 저항할 힘이 없는 박약아나 지체 부자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따돌림의 정도가 매우 잔인하다.

7) 이규미(1998)

이규미,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 현상』(“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접근,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1998)에서는 특별히 따돌림의 유발 요인을 몇 가지 차원에서 범주화하고 있다.

① 현재의 따돌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절한 태도와 행동들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공상이나 잡념 등의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것,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회피행동, 상황에 맞지 않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사회기술의 부족 등이 두드러졌다. 낮은 지능, 최하위의 성적, 정신적 장애 등도 따돌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현재의 따돌림은 과거 어린 시절 양육 과정에서 가정 사정이나 부모의 성격 특성상 부모의 따듯하고 안정된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피해의식과 짜증이 많은 할머니와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심한 어머니에게서 자란 경우,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했던 경우, 편모가정의 궁핍한 환경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 과잉보호와 잔소리 속에서 자란 경우 등을 볼 수 있다.

③ 따돌림은 잠재적으로 대인관계에 취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이 실제 학교생활의 또래관계에서 왜곡된 사회지각과 부적절한 사회행동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결국 따돌림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이경숙(1998)

이경숙,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8)는 전국의 57개 초·중·고 학생 6,893명을 대상으로 1년간 ‘왕따’를 조사·분석한 결과보고서이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내용을 요약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연구는, 비록 표준말로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 사이의 사실적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기술해 낼 수 있는 왕따라는 말을 연구 표제어로 채택하였고, ‘왕따’는 ‘집단 따돌림’만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집단 괴롭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② 초·중·고 학생의 4명 중 1명 꼴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경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도시보다는 읍·면

지역의 학생이, 가족간의 친밀도가 높은 학생보다는 낮은 학생이 왕따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③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의 순위로 왕따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고, 학교성적과 부모의 수입이 중간인 학생보다는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피해가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④ 왕따를 가하는 방법은 무시하거나 함께 놀아주지 않고 욕하거나 놀리며 망신을 주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⑤ 왕따가 되는 기간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또한 몇 달만에 왕따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학년이 바뀌거나 전학을 하거나 졸업을 해야만 왕따를 벗어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자살을 하거나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⑥ 왕따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 '척한다', '이기적이다', '믿을 수 없다', '말과 행동이 이상하고 눈치가 없다', '말이 없고 소극적이며 남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등을 거론하고 있다. '지능이 낮거나 남을 못살게 굴고 때린다', '왕따 편을 들어준다', '전학 왔다' 등도 왕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들고 있다.

⑦ 왕따를 가하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별 생각 없이 장난 삼아', '마음에 안 드는 점을 고치려고', '괴롭히는 것을 즐기기 위해',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등을 순서로 들고 있다.

⑧ 왕따를 주도하는 학생의 유형은 반에서 잘 나가는 아이들, 깃꺾거나 장난이 심한 아이들, 약삭빠르거나 교활한 아이들일수록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 모기유따까(1996)

모기유따까, 『이지메에 관한 연구』(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6)는, 비록 신학적인 접근을 통해 집필된 논문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198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 이지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분석

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메의 개념, 원리 등과 관련하여 이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살아 있는 친구를 죽은 것으로 간주해 ‘장례식 놀이’를 벌려 집단의 행동이나 원리에 벗어나는 집단 성원을 제재하려는¹⁰⁾ 이지메 현상이 1980년대 일본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이지메는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여러 영역에 만연되어 일어나는 병리현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② 일본 법무성 인권 옹호국에서는 이지메의 특징으로 i)집단이 약한 한 사람 내지 소수의 사람에게 가하며, ii)음습하고 집요하고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iii)일단 시작되면 말릴 수 없고, 피해자의 고통이 절정에 까지 이르게 되며, iv)장난 삼아, 혹은 울분을 풀기 위하여 진행되며, v) 집단 안에서 이질적이라고 간주된 사람, 벗어난 자가 대상이 되며, vi)주변에 있는 자들이 막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③ 이지메는 ‘선·악’의 윤리 판단 기준에서가 아닌, ‘안·밖’의 집단체제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집단 ‘안’에 있다면 정신적·육체적·경제적·사회적 모든 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단 ‘밖’으로 떠나면 그 사람은 ‘독립된 이상한 존재’로 일생동안 혼자 고독하게 살아갈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단한 각오로 특정 집단을 떠난다해도 그 집단보다 더 큰 ‘일본’이라는 집단이 그들 소외시키므로 대개의 사람은 현재 속하여 있는 집단 ‘안’에 계속 머물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가해자의 편에 선다.

10) 장례식 놀이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진행된다. 예를 들면 그 친구의 책상에 아침 일찍 조화를 갖다 놓는다던가 분향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놀이가 계속 진행되어 급기야는 히로후미라는 학생이 심리적 학대를 견디지 못해 유서를 남기고 학교 근처 공중화장실에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후지미중학교에서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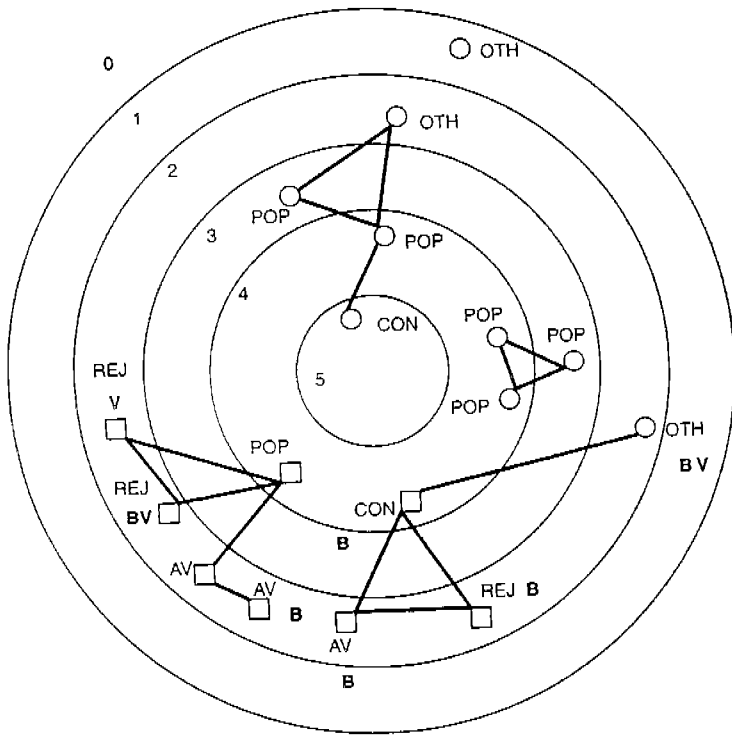
④ 이지메는 집단 안에서의 일치된 태도, 즉 타페마에(立前)와 억압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감정인 혼네(本音)를 잘 조화시키면서 처신하도록 요구하였던 일본의 역사적 전개상황에 기초하고 있다. “나=집단”이라는 정신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집단의 수치는 나의 수치이므로 타인(=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에게 보이지 않도록 수치부분(=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을 말살시켜야 한다. 이것이 이지메의 원리이다. 나 자신이 집단의 수치부라고 느낄 때, 더 큰 나(=내가 속한 집단)의 타페마에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 즉 집단의 균일화된 외모가 타페마에이고 타페마에를 파괴하지 않도록 말살시켜야 하는 혼네가 “나”이다. 이것이 집단내 자살의 원리이다.

10) Peter K. Smith, Helen Cowie and Lucia Berdondini(1994)

Peter K. Smith, Helen Cowie and Lucia Berdondini, “Co-operation and Bullying”, Peter Kutnick and Colin Rogers ed., Groups in Schools, London: Cassell Villiers House, 1994.에서는 학급에서의 협동적 집단 과제 수행(CGW: Co-operative Group Work)의 장애 요인으로 집단 괴롭힘(bullying)을 들고 있다. 이 연구는 괴롭힘은 넓게는 집단 따돌림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 연구물은 괴롭힘의 원인과 실태 및 대처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① 연구자들은 사회측정법(sociometry)을 통해 학급 내 학생들을 대인 지지관계에 관한 그림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1]과 같다.

이 그림은 17명(남학생 8명, 여학생 9명)으로 구성된 학급에서의 학생들의 대인지지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학생에게 “학급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3명과 가장 싫어하는 사람 3명을 적어내도록” 하였다. 가운데 동심원에 위치해 있는 학생일수록 학생들로부터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 지명 받은 회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바깥 원에 위치



— : 상호지지관계 CON: 양면성집단 REJ: 배척집단 B=가해자
 □ : 남학생 POP: 인기집단 OTH: 기타 V=피해자
 ○ : 여학생 AV: 평균집단 B/V=가해자/피해자

[그림 II-1] 학급 내 대인관계 지지도¹²⁾

하고 있는 학생은 지명 받은 회수가 그 만큼 적은 것을 의미한다(원의 숫자는 지명 받은 회수를 뜻함). 그리고 서로간에 연결된 사선은 서로가 서로를 친한 친구로 지명한, 상호 친구의 관계를 뜻한다. 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서로 상호지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 누구와도 상

12) Ibid., p.198.

호지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 학생이 집단 따돌림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¹³⁾

② 학급 내에서 학생들이 상호관계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나타나는 상호관계에 따라 학급 내 집단을 인기 학생(the popular)·따돌림 당하는 학생(the rejected)·양면성 학생(the controversial)·무관심 학생(the neglected or the isolated), 기타(others)의 소집단으로 범주화해 볼 수 있다. 이들 각 집단이 나타내는 특성을 기술해 보면 <표 II-1>과 같다.¹⁴⁾

<표 II-1> 학급 내 소집단의 구분과 특성

구 분	특 성	역 할
인기집단 (the popular)	They were always liked, and not disliked.	공식적 대표
배척집단 (the rejected)	They were frequently disliked, and not liked.	공격성이 강함
양면성집단 (the controversial)	They were liked by some, and disliked by others.	비공식적 대표(장). 공격성이 강함
무관심집단 (the neglected)	No one picks out either to like or dislike.	지도성·공격성· 협동성 모두 결여
평범집단 (the average)	The others	참여적임

2.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앞에 제시한 청소년 집단 따돌림에 대한 다양한 연구물들은 그 나름의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아울러 몇 가지의 한계점도 갖고 있다.

1) 의의

13) Peter K. Smith, Helen Cowie and Lucia Berdondini, "Co-operation and Bullying", Peter Kutnick and Colin Rogers, *Groups in Schools*, London: Cassell Villiers House, 1994. p. 199.

14) Ibid., p.197.

첫째, 여러 연구를 통해 집단 따돌림의 개념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즉, 집단 따돌림이란 ① 한 개인이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결과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것,

② 특정인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 하는 언어적·신체적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③ 한 집단의 소속 성원 중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또는 개인이 돌아가며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좀더 간단히 정리해서 집단 따돌림이란 ‘한 집단 내에서 다수가 한 개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둘째,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다양한 은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 따돌림을 지칭하는 말로 ‘왕따’가 널리 사용되어서, 이제는 왕따는 은어가 아닌, 일반인들의 일상어가 되어버린 듯하다. ‘왕따’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은어로서는 ‘따순이’, ‘따돌이’, ‘은따’, ‘개따’, ‘나잘난양’, ‘고도순양’, ‘유난히양’과 같이 그 뜻이 쉽게 잡히는 말로부터, ‘생까(무시하기)’, ‘산탄다’(애를 때리 러 간다), ‘뒷달깎다(뒤에서 욕한다)’, ‘쫓주다(창피주다)’, ‘뺨오른다(화난다)’, ‘갈구다(시비 붙다)’, ‘까대다(말대꾸하다)’, ‘다구리(집단 구타)’, ‘씨빠빠(순진하고 개성이 없는 아이들)’, ‘생까다(모르는 체하다)’, ‘뺨꾸(육체적으로 성치 않은 사람)’, ‘살까다(소름끼친다)’, ‘사발치다(거짓말하다)’, ‘몰갈이하다(후배들을 구타하다)’, ‘뺨(선배)’, ‘짱돌이(짱을 보좌하는 아이)’, ‘담탱이(담임선생님)’, ‘썩구라(거짓말)’, ‘후까시까다(말로 겁주다)’, ‘썰다(도망하다)’ 등과 같이 좀처럼 그 뜻이 쉽게 잡히는 않는 것들도 있다.

셋째, 집단 따돌림은 특정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닌, 지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청소년 집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

반현상이 되고 있다.

넷째, 집단 따돌림은 발생시기에서는 중학생, 초동학생, 고동학생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집단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기 중간보다는 신학기 초인 학년이 바뀔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집단 따돌림 현상이 직접적으로 그 현상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함께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심리상태 혹은 행동적 특성에 기인함을 분석해 내고 있다. 즉 특이한 외모나 환경을 가진 청소년(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불우한 청소년 등)이나 별난 행동유형을 견지하는 청소년(예를 들면 잘난 체 한다던가 하는 등)과 이를 수긍 혹은 용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충돌한 결과, 나타나는 것이 집단 따돌림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집단 따돌림을 확인할 수 있는(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시키)는 청소년들의 행동적 특성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즉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의 행동적 특성으로는 튀는 행동(잘난 척, 착한 척, 예쁜 척 하는 등)을 취하는 경우,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는 경우, 솔직하지 않은 경우, 말·행동이 이상하고 눈치가 없는 경우, 소극적이고 말이 없으며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 지능이 낮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따돌리는 청소년의 행동적 특성에는 자주 화를 내거나 과격한 행동을 취하는 것, 학교의 공식적인 활동에 참가를 꺼리는 것, 다른 친구들의 소지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왕따 친구에 대해 자주 얘기는 하는 것, 참을성이 부족하고 천박한 말투를 구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일곱째, 따돌림 현상에 대처하는 미시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당사자들 차원에서, 학교(조직) 차원에서, 그리고 가정 차원에서 각각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2) 한계점

첫째, 기존의 대개의 연구들은 집단 따돌림에 대한 윤리적 가치 분석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즉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집단 따돌림이 청소년 집단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집단 따돌림이 갖는 윤리적 한계와 그것의 위해성이 논리적으로 정리될 때, 집단 따돌림에 관계되는 청소년을 좀더 설득력 있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집단 따돌림에 대해 현상적 분석에 치우치고 있다. 즉 대개의 연구들은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는 상황을 분석하여, 이것이 따돌림의 가해자/가해 집단과 피해자간의 행동적 특성이 달라서 서로간의 부적응, 혹은 피해자 일방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가해자 일방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 따돌림은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아왔던 개인 대 개인, 집단 대 개인이 특정의 상황에서 서로가 살아왔던 삶의 유형을 견지함으로 나타나는, 문화 충돌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관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집단 따돌림에 관여하는 자의 행동을 수정시키는 데는 상담 활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문제가 발생케 되는 사회여건들을 그대로 두면서 문제자의 행동만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문제상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집단 따돌림이 있어나는 사회·문화적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이를 분석·수정해야만 누구라도 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상담심리학 중심으로 전개되다보니 그 대처 방안이 지나치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시키는 당사자들의 태도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개인이 견지/유지하는 태도와 인간관계는 그가 뿌리내리고 있

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볼 때, 특정 집단 따돌림 현상을 중심으로 한 개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사회·윤리적 접근

집단 따돌림에 관련하여 우리는 ‘있는 듯한 사실’을 ‘있는 사실’로 밝혀내는 분석적 차원의 연구와 아울러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하는 가치 판단의 차원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즉 집단 따돌림의 발생동기, 실태, 결과 등을 사실적으로 분석하는 ‘사실판단’과 이러한 전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여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가치판단’의 측면을 함께 궁리해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분석을¹⁵⁾ 통해 집단 따돌림이 옳지 않다면 그 옳지 않은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철학적 탐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 사회현상의 발생을 적절하고/정당하고 혹은 부적절하고/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그 어떤 기준에 의거해야 한다.¹⁶⁾ 집단 따돌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집단 따돌림은 틀림없이 구성원들 사이에 불평등을 갖다 주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명제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평등은 자유와 함께 인간이 인간됨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의 하나이다. 이 때 평등이라는 말은 성질 또는 특성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우와 취급을 지칭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명제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

15) 도덕이란 법률이나 예절처럼 인간 생활을 규제하는 규범이다. 하지만 도덕은 법률이나 예절과 달리 인간의 동정심과 주로 관계되는 것이다. 즉 도덕은 인간의 동정심을 교정 함으로써 인간이 처한 곤궁이나 곤경을 줄이는 것이다.

16) 김영진, “평등의 논리와 윤리” 한국사회이론학회 역음, 평등의 문제와 우리 사회, 서울: 현상과 인식, 1989. p.22.

다.

첫째, 모든 인간은 같은 종(species)의 같은 구성원이다.

둘째, 같은 부류(class)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균등하게 취급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하고도 좋은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꼭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¹⁷⁾

이러한 평등의 가치에 따라 인간이 모인 크고 작은 집단 속에서는 인간은 스스로 균등한 배분(equal distribution), 균등한 대우(equal treatment), 균등한 권리(equal rights), 균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로 나타나는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집단 속에서 “복수 또는 개인이 약자를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신체적·정신적 공격”으로 개념 지워지는 집단 따돌림 현상은 결국 집단 성원간의 불평등한 관계구조를 낳게 만들며, 이는 결국은 평등의 이념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일차적으로 어떠한 인위적인 이유나 환경의 여건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의 기회가 활용되는 데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이¹⁸⁾ 집단 따돌림 현상을 통해 깨뜨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따돌림이 갖는 부당성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강자 혹은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들)의 약자에 대한 군림의 한 표상인 집단 따돌림은 평등의 궁극적 가치인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측면에서 평등의 가치, 정의의 가치를 깨뜨린다고 할 수 있다.¹⁹⁾

또한 톨리히의 본질적 정의론(intrinsic justice)에 비추어서 ‘집단 따

17) 상계논문, p.22.

18) 평등론자들은 이러한 평등의 단계를 법적인 평등(*de jure equality*)이라고 한다. 이는 칸트가 주장했던 불편협성(impartiality)의 원칙과 인간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신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강희천, “교육에서의 평등: 긍정적 차별화”, 한국사회이론학회 엮음, 평등의 문제와 우리 사회, 서울: 현상과 인식, 1989. p.95.

19) 전계논문, pp.96~99.

돌림' 현상이 수반하는 부당성이 지적될 수 있다. 인간 모두는 서로가 스스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으며 인간의 삶은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자기 존재를 실현하고자 하는 각자의 요구는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는 평등한 권리이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의가 된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자기 실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탈리히가 말하는 본질적 정의론(intrinsic justice)이다.²⁰⁾

그런데 자아실현은 개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개인은 자기중심을 가진 자아로서 자기 존재를 실현하는 주관적 인격체이면서, 인격이 서로 만나는 인격공동체 안에서의 인격체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자아실현의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나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평등도 자아를 바르게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요체로서 언제나 상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호성이 보장될 때 바로 사회정의의 기반이 확립될 수 있다. '집단 따돌림'은 집단 성원들 서로가 평등에 기초한 자아 실현의 상호성을 부인하며, 관계의 편중성을 일으켜 결국은 사회를 정의롭지 못한 상태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집단 따돌림'이 갖는 부당성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문화적 접근: 문화·문화적 격차 대 문화적 차이

학교 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따돌림 현상'은 분명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의 하나이다. 사회현상의 하나로서 '집단 따돌림'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이끄는 또 다른 선행의 다른 집단적 사회현상과 유기

20) Paul Tillich, *Love, Power, and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p.82, 양창삼, "불평등과 차별적 사회문제", 한국사회이론학회 엮음, 평등의 문제와 우리 사회, 서울: 현상과 인식, 1989. p.64. 재인용.

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특정 집단 속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일단 집단 성원들 간에 공유되기만 하면 집단 성원의 사고와 행동을(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에 관계없이) 지배하는 것을 문화라 한다. 집단 따돌림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며, 문화현상으로서 '집단 따돌림'은 그것에 선행하는 또 다른 문화 현상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여 그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문화 현상으로서 '집단 따돌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집단 따돌림'을 낳게 하는 선행의 문화 현상, 즉 문화적 격차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문화란?

문화에 대한 정의는 문화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만큼이나 다양하다. 문화의 정의가 다양함은 문화가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의와 의미를 지닌 문화를 하나로 종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젠크스와 톰프슨이 범주화하고 있는 문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에 대한 개념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젠크스(C. Jenks)는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 많은 문화의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시켜 범주화하고 있다.²¹⁾

첫째, 인식범위로서의 문화를 들 수 있다. 문화는 정신의 일반적 상태로 이해된다. 이러한 문화 개념에는 완성이라는 관념, 즉 성취나 해방과 같은 개별 인간의 목표 혹은 열망이 적재되어 있다. 한 수준에서 이것은 고도의 개인주의적 철학을 반영하고, 다른 수준에서 특수성이나 차이, 심지어 '선민의식' 및 인간의 우월성을 철학적으로 신봉하는 예가 된다. 이러한 문화 개념의 기원은 대체로 영국의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작가들의 문학 및 문화비평 작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1) Chris Jenks, Culture(1993), 김윤용 역,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미술사, 1996. p.25~26.

둘째, 보다 구체적이고 집합적인 개념으로서 문화를 들 수 있다. 이는 문화를 사회의 지적·도덕적 발달 상태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또한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그리고 퇴보와 진보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였던, 인류학을 창시한 초기 진화론자들로 알려진 사회 이론가들이 보았던 문명의 개념과 연결시키려는 입장으로서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연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념은 문화개념을 개인 의식 아닌, 집합적 생활의 영역 속에서 파악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 기술적·구체적 범주로서의 문화를 들 수 있다. 이 때 문화는 한 사회의 예술 및 지적 작업의 총체로 간주된다. 이것이 바로 흔히 문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의미하는 바이며, 여기에는 특수성, 배타성, 엘리트주의, 전문지식, 연마 및 사회화 등과 같은 의미들이 적재되어 있다. 이는 비록 한 사회 속에 감추어진 상징체계일지라도 생산되고 침적된 상징영역이 문화라는 확고히 정립된 통념이다.

넷째, 사회적 범주로서의 문화를 들 수 있다. 이 때 문화는 한 종족/집단의 전체 생활 방식으로 간주된다. 이 문화 개념은 사회학과 인류학, 그리고 그 뒤 보다 국부적인 의미로 문화연구에서 주요 관심 영역이 되었던 다윈주의적이며, 민주적인 문화개념이다.

톰프슨 역시 다양한 문화의 개념을 다음의 몇 가지로 단순화시켜 설명하고 있다.²²⁾

첫째로 문화의 고전적 개념(classical conception of culture)을 들고 있다. 이는 문화를 인간의 지적 전개과정(a process of intellectual or spiritual development)으로 정의 내리는 입장이다. 이는 18~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철학자들이, 물질적 도구의 개발과 발전을 의미하는 문명(civilization)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간 정신과 예술의 발전을 문화로 정의하려고 했던 결과로 지지했던 문화의 개념이다.²³⁾

22) John Thompson, *Ideology and Modern Cultur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123.

둘째로 문화의 서술적 개념(descriptive conception of culture)을 들고 있다. 이는 문화를 특정 시대와 사회가 나타내는 각종의 가치, 신념, 확신, 관습, 습관, 관행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삶의 양태로 보는 입장이다.²⁴⁾ 문화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문화를 과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서, 문화의 분류, 생성, 대체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제기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셋째로 문화의 상징적 개념(symbolic conception of culture)을 들고 있다. 이는 문화를 사람에게 의미를 갖다 주는 상징적 몸짓, 언어, 각종 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²⁵⁾ 이를 통해 사회 성원들은 서로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서로가 갖는 경험과 신념 등을 공유할

23) 이러한 의미를 갖는 '문화(culture)'라는 말이 널리 보급되기는 독일의 작가 Adelung이 1782년 'Cultur-Geschichte'- 'History of Culture'라는 글을 발표한 뒤부터라 할 수 있다. Herder, Meiners, Jenish 등과 같은 독일의 철학자 문학가들이 이러한 문화의 개념을 지지하였다. *Ibid.*, p.125.

24) 이에 관련하여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E.B. Tylor는 문화를 문명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그의 저서 *Primitive Culture*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Culture or civilization, taken in its wide ethnographic sense, is that complex whole which includes knowledge, belief, art, morals, law, custom, and any other capabilities and habits by man as a member of society. The condition of culture among the various societies of mankind, in so far as it is capable of being investigated on general principles, is a subject apt for the study of laws of human thought and action. *Ibid.*, p.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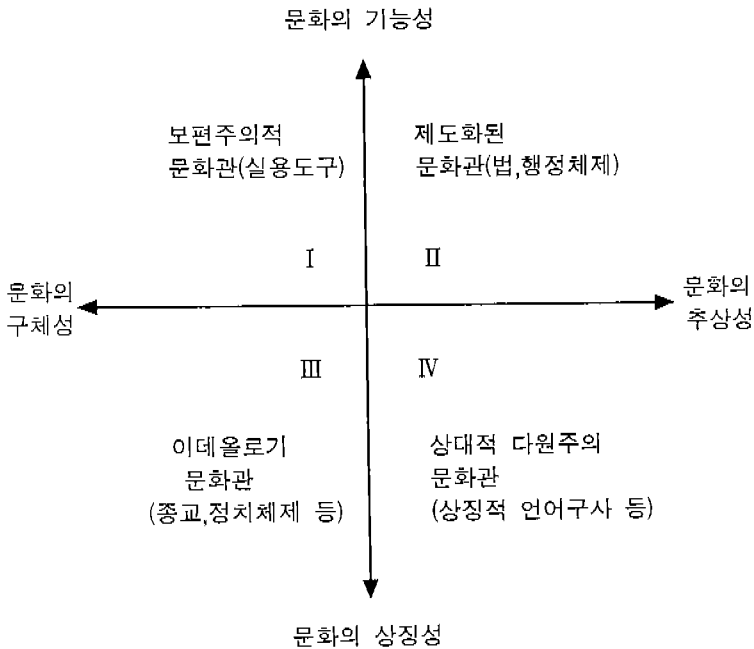
25) 상징으로서의 문화를 처음 주창한 사람은 L.A. White이며, 그는 인간은 상징을 제조하고, 상징을 이용하는 면에서 다른 동물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White를 이어 상징으로서의 문화이론을 정립한 사람은 Clifford Geertz이다. Geertz 는 그의 저서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에서 '인간이란 스스로가 만든 의미의 거미줄(webs of significance)에 갇혀 사는 존재이며, 의미의 거미줄이 바로 문화라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문화분석이란 법칙을 찾는 실험과학이 아니라 의미를 켜는 해석과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Ibid.*, p.128.

수 있다.

넷째로 문화의 사회구조적 개념(structural conception of culture)을 들고 있다. 이는 문화를 특정의 주체가 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특정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구조화된 과정으로 보려는 입장이다. 이는 톰프슨의 입장이기도 하다. 톰프슨은 문화의 사회구조적 상징 개념의 특징으로 i) 상징적 형태로서 문화는 주체자(subject)의 의도(intention)에 따라 생산되고, 구조화되고, 받아들여진다(produced, structured, employed), ii) 상징적 형태는 전통적 측면(conventional aspect)을 함유하고 있다, iii) 상징적 형태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의 그 어떤 특정사물(something)을 지칭한다, v) 상징적 형태는 특별한 사회적·역사적 상황 속에서 배태된다 등을 들고 있다.²⁶⁾

문화에 대한 정의와 분류 방법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젠크스와 톰프슨의 분류 이외에도 더 다양한 시도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문화가 갖는 기능성↔상징성, 혹은 구체성↔추상성을 강조하는 양극의 축을 중심으로 보편주의적 문화관, 상대적 다원주의 문화관, 사회·제도화된 문화관, 이데올로기 문화관 등으로 패러다임화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III-1]와 같다.

26) John Thompson, *Ideology and Modern Cultur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p.138~145.



[그림 III-1] 문화의 개념 구분에 따른 문화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따돌림 현상’ 역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며, 이에 대한 해석은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내려질 수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보편주의적 문화관의 입장에서 볼 때 ‘집단 따돌림’은 구체적인 기능성을 강조하는 문화체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따돌림을 시키는 입장과 이를 방관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집단체제 유지에 있어서 서로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배분되어 어느 정보는 상부상조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에서 있는 개인 혹은 소수 성원은 역할수행의 불안정 속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화적 획일주의 속에서 가장 기능적으로 작용하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자들이 그렇지 못한 개인/소집단에 대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며, 그렇지 못한 개인이나 소

수는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둘째, 사회 제도화된 문화관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일탈 집단에 의한 비행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회조직은 스스로가 유지되어야 할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거쳐야 하는 규정된 절차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규정된 목적과 조직 운영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적어도 공식적 조직 중에서 ‘집단 따돌림’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도 역시 일탈된 집단의 성원이요 그 행위 자체가 비행행위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데올로기 문화관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다수의 지배집단이 나름대로는 강한 주체성을 지닌 개인/소수를 억압하려는 갈등적 구조가 바로 ‘집단 따돌림’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집단 따돌림’은 조직 내의 상대적으로 작은 여러 소집단들이 조직 내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다툼을 벌이는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넷째, 상대적 다원주의 문화관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 따돌림’ 현상은 각각의 문화를 갖는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해 가는 한 형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어쩌면 이러한 관점에서는 ‘문제의 시각에서 상황을 보기 때문에 상황이 문제로 보인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위의 I, II의 패러다임은 문화를 획일적으로 보려는 획일적 문화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III, IV의 패러다임은 문화를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보려는 다원적 문화관에 기초하고 있다. 획일적 문화관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조직에서는 집단 성원들에게 유일한 문화유형(기능성 위주의 문화)을 따르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리고 그 유일한 문화유형에 가담하는 정도에 따라 문화적 격차(cultural deprivation)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다원적 문화관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조직에서는 집단 성원들이 나름의 문화

유형(상징성 위주의 문화)을 추종할 수 있게 됨으로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집단 따돌림'은 I, II의 패러다임에서는 문화적 격차 현상으로부터 일어나는 사회현상이며, III, IV의 패러다임에서는 문화적 차이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문화적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 '괴롭힘'의 특징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III-1>와 같다.

<표 III-1> 문화적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 괴롭힘의 특징

문화적 패러다임	집단 괴롭힘의 특징	문화적 인과현상
I. 보편주의적 문화관	외도적 소외현상, 기능적 부적응 현상	문화적 격차 현상
II. 제도화된 문화관	일탈집단에 의한 비행 현상	
III. 이데올로기 문화관	외도적 주도권 다툼 현상	문화적 차이 현상
IV. 다원주의적 문화관	왜곡된 해석의 문제	

2) 문화적 격차 대 문화적 차이²⁷⁾

앞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집단 따돌림'은 문화적 격차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적 격차와 문화적 차이는 지능의 격차와 함께 보통 교육의 성취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교육 성취도에서의 차이를 다음의 두 가지의 접근방법에 의해서 설명하였다.

첫째는 지능 격차 이론으로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간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능에 차이가 있으며, 이 지능의 차이, 즉 학습능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수준에 있어서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27) 이 부분에서의 문화적 격차와 문화적 차이에 관한 설명은 오욱환, “문화실조이론의 교육사회학적 반성”, 학교교육의 불평등, 서울: 교육과학사, 1992. pp.160~188를 중심으로 임의 요약한 내용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성취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능격차이론은 인종간, 계급 출신별 대학 합격률에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하는 좋은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이 지능격차이론은 교육을 통한 잠재력의 무한한 개발 가능성에 한계를 설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육성의 영역에서는 일찍이 수궁할 수 없는 접근이었다.

둘째는 문화적 격차(cultural deprivation) 혹은 문화실조 이론으로서 이는 유전적 결정론을 반박한다. 이 이론은 교육성취의 격차는 유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가정의 문화적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가정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아동은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충분한 교육적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한 부족한 교육적 자극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문화적 요소가 결여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문화실조 이론은 두 가지 점에서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환경을 받았다. 첫째, 학업성취의 격차가 학교 아닌 다른 곳, 가정에 있다는 점을 합리화시켰기 때문이다. 즉 이는 교육자들에게 교육실패에 대한 알리바이(alibi)를 성립시켜 주었다. 둘째, 바로 이 알리바이를 통해 교육의 영역을 확대시킬 구실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교교육 이전의 교육적 예방조치는 학교교육의 영역을 취학 전 학령으로까지 확대시킴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문화격차 이론은 교육자, 교육 정책이론가, 정치가 등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었으며, 이는 쉽게 정책적 방안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보상교육정책으로 이름 붙여진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고, 미국의 Head Start Program, 우리 나라의 평준화 정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학업성취 수준에 있어서 도시지역의 청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우리 나라 농촌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화 격차 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보상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 격차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평준화 정책을 중소 도

시 혹은 농촌까지 확대 실시하며, 학교 시설과 주변 환경을 더욱 개선한다면 이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도시 청소년들의 그것과 같아지거나 최소한 그 격차는 좁혀질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상대주의자들(대개는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문화격차라는 말과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 구성원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문화라고 보는 이들은 '사람이 그들 자신의 문화로부터 실조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즉, 마땅히 지녀할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유리된 상태가 문화격차의 상태라 한다면, 각각의 사람은(혹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 혹은 경험에서 보면 몰라도 적어도 각자의 관점과 경험에서 본다면 결코 유리될 수 없다는 것이 문화 상대론자들의 입장이다.

조직 성원의 서로 다른 삶의 유형을 문화격차와 문화상대주의 중 어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삶의 유형을 문화적 격차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차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에 대한 접근과 해석은 다양하다. 이는 각자의 관심을 어디에 맞추느냐 따라(예컨데 사회나 지식이나 또는 행동이나)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의 개념을 i) '관념' 혹은 '정신적 세련됨' ii) 환경에 대한 '적응체계' 혹은 '공통의 삶의 양식', iii) 사회의 '구조체계' 혹은 '조직체계', iv) 사회성원들의 행동을 유도·규제·해석하는 '상징체계', v) 특정 집단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등의 관점의 선택일 수도 있고, 문화의 패러다임으로 기능성 vs. 상징성, 구체성 vs. 추상성에서 어느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개념의 다양성과 문화패러다임의 양면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성원들이 갖는 문화는 그 속성에 있어서 기능성(공통성)과 상징성(상대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문화란 특정 집단 개개인의 삶을 유지시

키는 토대(기능성: 식생활의 방식, 생활기술, 물질활용 등)이기도 하고, 특정 집단 성원을 다른 집단 성원으로부터 구분시키는 집단성원의 독특한 삶의 방식(상징성: 종교, 가치, 관습, 신념, 은어 등)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가 기능성(공통성)과 아울러 상대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문화가 갖는 기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성원들간에는 그 특정 집단 속에서 문화가 나타내는 기능성의 정도에 따라 문화적 격차 현상이 나타나고, 상징성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성원들 스스로가 나타내는 주체성에 따라 문화적 차이 현상이 나타난다.

민족, 국가, 종족 등이 문화를 향유하는 단위로 쉽게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국가나 민족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하위집단이 갖는 문화를 생각할 수 있다. 한 조직의 하위집단들이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은 하위집단들이 서로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계층적/계급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한 조직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하위 집단을 갖고 있다고 보면 그 조직은 하나의 공통된 조직문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계층적으로 분리된 하위집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각각 하위집단들은 그들 특유의 상징적 문화 양식을 갖고 집단간 경쟁을 벌이고 있을 뜻한다. 아울러 사회를 계급적으로 본다면 각 하위집단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서로간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집단이 나타내는 사회적 특성과 문화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의 <표 III-2>과 같다.

<표 III-2>에 따르면 문화적 격차는 단일문화에 기초하고 있는 기능사회 속에서 집단간 기능의 불평등한 배분에 비롯된다. 예컨대 성인집단은 청소년집단보다 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며,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성인이 주도하는 기능사회에서 더 잘 적절히 적응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 집단은 그들이

<표 III-2> 하위집단의 사회적 특성과 문화와의 관계

사회 \ 문화	문화의 종류	문화간의 관계	구성원의 지배적문화관
기능사회	단일문화	통합(일치)	기능적 문화관
계층사회	복수문화	경쟁(병존)	상징적 문화관
계급사회	복수문화	갈등(위계)	상징적 문화관
기능계층사회	공동문화 및 복수문화	통합과 경쟁	기능/상징적문화관

갖고 있는 빈곤한 자원과 기능으로 인해 기능 사회 속에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다양한 삶의 유형을 지향하려고 하는 소집단들이 한 조직 내에 서로 공존할 때 그 소집단들이 서로 유지하는 관계는 크게 경쟁과 갈등이다. 경쟁관계는 한 삶의 유형을 지향하는 소집단이 다른 삶의 지향하는 소집단에 대해 우위적 입장을 견지하려고 하지만 상대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된다. 이에 반하여 갈등관계는 상이한 삶의 유형을 지향하는 두 개 이상의 소집단 서로가 다른 삶의 유형을 갖는 상대 집단을 인정하지 않고 그 관계는 지배-종속관계로 해석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결국 각 소집단들이 질적으로 다른 문화를 가지는 경우에는 절대적인 비교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 격차를 판단할 수 없고 각 집단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충분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문화적 격차를 인식할 수 없다.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비롯하는가? 이 질문은 '집단 따돌림'이 문화적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를 밝히는 문제와 같다. 또한 이는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 기능적 지배 사회인가 아니면 서로간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기능·계층적 사회인가를 밝히는 문제와 같다.

① 기능적 지배사회는 앞의 <표 III-1>이 보여주듯이 보편주의 문화관과 제도화된 문화관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로부터 또한 문화적 격차

현상이 나타난다. 예전에는 실리보다는 명분, 외모보다는 내면을 강조하는 교양적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영역과 지위를 불문하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실리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물질적 획득과 육체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구주의가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도구주의 사고는 학교에서 성적 지상주의 가치를 만연시켜 오로지 성적에 의한 기능성만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말았다. 성적만이 유일한 가치 판단이 되는 학교조직에서는 누군가가 일등이 되면, 누군가는 꼴찌의 입장에 서야만 되는 영 합산게임(zero-sum game)의 상황하에서는 이해, 협동, 공존의 상생적 가치보다는 소외, 일탈, 지배, 압도 등과 같은 부적응 혹은 일탈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위주의 사회로부터 문화적 격차 현상이 일어나고, 기능성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배 집단이 그렇지 않은 개인/소수를 따돌리는 것이 '집단 따돌림' 현상이다.

② 다시 <표 III-1>이데올로기 문화관과 다원주의적 문화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집단 따돌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수로 구성된 평균적인 소집단이 개인/소수의 강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은 양자 중 어느 한쪽의 행동에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결국은 조직의 역동성이 발휘되며 조직의 발전을 가져가 줄 수 있다.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집단 따돌림'을 그렇게 크게 문제시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나를 남과 구별시키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는 본능일 수도 있고, 사회적 경험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기도 한다.

문화의 기능성과 상징성을 학교에서 함께 성취하는 데는 늘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는, 조직이 요구하는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성을 강조하는 지배집단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크며, 소

수집단의 상징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개인/소수집단은 기능성의 습득에서는 늘 뒤떨어지기 마련이며, 그들만의 상징적 세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 또한 학교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수 집단의 상징성(생활유형, 노력의 방법, 의·식·주에서의 선택취향 등)이 인정될 수 있는 다원적 가치체제가 학교에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학교생활은 그들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곳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기능적 학교문화는, 그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일단 한번 따돌림을 당한 개인/소수집단을 더욱 따돌리는 '빈익빈 부익부'의 효과로 인해 '기능적으로 잘 적응하는 자는 한번 잘 적응한 것으로 다음 기회에도 더 잘 적응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한 경우에 적응하지 못한 자는 그로 인해 기능적 학교 사회에서 적절히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²⁸⁾

28) Robert Merton은 마태복음 25:14~30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지적하면서 이를 "Matthew Effect"라 하였다. Robert Merton, *The Sociology of Scienc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73. p.443.

IV. ‘집단 따돌림’에 대한 예방과 대책

1. 예방책

다른 청소년문제와 마찬가지로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도 먼저 그러한 병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크게 요구된다. ‘집단 따돌림’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이 갖는 비윤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단 따돌림’ 현상을 소위 ‘왕따’로 지칭하면서, 왕따가 코메디 프로의 한 장면처럼 모두에게 한바탕 웃음을 주는 재미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왕따라는 말 자체가 ‘집단 따돌림’을 희극화하여 부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전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이 갖는 비인간성, 사회적 관계의 부정의성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 관을 확립해 갖도록 해야 한다.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유지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따돌리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지만 피치 못해 ‘따돌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내면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며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주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집단 따돌림’은 따돌림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됨으로써(특히 ‘따돌림’의 피해자 입장에서) 스스로를 확대시켜 더 악화된 상황(예를 들면 자살을 시도한다던가)으로 내모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자기의 특성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는 물론 다른 조직성원을 더 높은 차원에 이르도록 고양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현장에 과열되어 있는 경쟁의식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성취 지향적 사회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본격적인 사회활동이 유예되어 있는 청소년층에 있어서는 성취를 향한 열망은 학업경쟁으로 부추겨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학업성취의식이 철이 들면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가정 및 학교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주입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방과후 활동 혹은 특기 적성 교육을 계획대로 활성화하여 학업 성취에 의한 과열된 경쟁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집단 따돌림'은 근본적 청소년들간에 '공동의 관심 영역'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임의활동과 고유활동에 그들의 시간을 할애할 뿐만 아니라 수련활동의 절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과 그에 따른 놀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집단 따돌림'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관심부족'과 '무너지는 가정'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평소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하여 자녀에게 의·식·주를 확보해 주는 부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부모의 자질을 개발해 주고, 가정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의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 먼저 있어서 그것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이미 있는 '집단 따돌림'과 비슷한 병리현상이 학교 상황에 투영되어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의가 줄어들도록 사회정화가 이루어지거나 사회현상이 학교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들의 신뢰성, 정직성,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 함양될 수 있도록 각종 사회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2. 대 책²⁹⁾

1) 학교에서의 대책

① 토론을 통한 ‘집단 따돌림’의 이해 : ‘집단 따돌림’에 대해 드러내 놓고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이 현상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집단 따돌림’이 사회조직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각자의 얘기를 하게 함으로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당하는 입장, 그리고 방관자의 입장들이 드러나게 되고, 교사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단호한 의미가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② 학급 내 소집단 활동 활성화 : 한 학급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구분하여(현재의 자리 배치에 의한 1, 2, 3...분단과 같은 분단구분이 아니라), 소집단별로 방과후 혹은 주말 활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소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수립·내용구성 하는 데 지도와 자문을 제공한다.

③ 놀이·수련활동 활성화 : 수련전문활동가를 초빙하여 함께 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 이는 일시적인 행사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1~2 주일 혹은 한 달의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련 전문 활동가를 초빙하는 프로그램을 놀이 프로그램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 예능활동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함께 하는 단체활동을 통해 집단 유대감이 증진될 수 있다.

29)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물들이 제시하였던 상담활동, 혹은 개인 지도 차원의 대책을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많은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대책들에 청소년들 서로간에 문화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태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다.

2) 가정에서의 대책

① 피해자인 경우: 자신감을 갖도록 배려할 것: 벽돌의 크기가 서로 다름에 따라 그 배열이 잘 안 맞춰질 수 있듯이 인간의 삶의 유형 또한 역시 그럴 수 있음을 이해시키고 현실을 수긍하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여 교사와 상의한 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여행 다녀오기”를 실천해 본다.

② 피해자인 경우: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 따돌림을 당한 자녀를 둔 부모는 일단 자신의 자녀 양육방식에 결점이 있음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 후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정·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가정의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③ 가해자인 경우: 집단 따돌림의 폭력성을 인식시킴: 물리적 폭력만이 한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따돌림도 심각한 정신적 폭력임을 확실히 인식시킨다. 부모가 따돌림을 시키는 자녀에게 엄하게 체벌을 주며, 육체적 고통을 정신적 고통으로 체험하도록 한다.

④ 가해자인 경우: 본인이 따돌림을 시킨 피해자를 집으로 초청하게 하기: 본인이 따돌림을 시킨 친구를 집으로 초청하도록 설득하고, 중재하고, 기회를 마련해 준다. 결국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의도적인 친밀성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임을 깨닫게 한다.

3) 언론 및 일반사회에서의 대책

① 매스컴 보도의 자제: 집단 따돌림을 희화화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말고, 방영하지도 않는다. 최근 방송가에서는 일본 TV 방송에 퍼져있는 연예인 골탕먹이기, 사생활 들추기 식의 프로그램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모방하면서 방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를 다시 모방하면서 왕따놀이, 왕자병, 공주병 등으로 이어지는 ‘왕따’ 만들기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② 청소년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최근 들어 스타 청소년들의 방송 출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반 청소년들의 허황된 모방심리와 심리적 박탈감이 부풀어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학업수행과 인간관계유지를 무시하고 “뜨기만 하면 된다”식의 메시지를 청소년에게 주는, 청소년의 방송 출연은 한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③ 입시경쟁문화의 개선: 소수의 성공한 자와 다수의 실패자를 주조하는 듯한 입시 제도에서는 많은 아이들의 정서가 황폐화될 수 있다. 옆의 친구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벗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딛고 일어서야 하는 극복의 대상, 능가의 대상, 성공의 수단 등으로 간주되는 분위기에서는 ‘따돌림’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을 탓하기 전에 ‘집단 따돌림’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환경이 낳은 역기능의 하나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어른들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바로 아이들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으며, 어른들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당장 아이들간의 왕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어른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집단 따돌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집단 따돌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으나, ‘집단 따돌림’은 일반적으로 “복수 또는 개인이 약자/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신체적·정신적 공격”정의를 할 수 있다.

‘집단 따돌림’ 현상은 언제인가부터 우수개 소리로 ‘아주 큰 것’, ‘으뜸’, ‘우두머리’의 뜻을 갖는 접두어 ‘왕-’이라는 말과 어울려져 ‘왕 따돌림’ 혹은 ‘왕따’라는, 약간은 회화화된 말로 불리게 되었다. 이 말은 ‘최고의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엄청나게 따돌림을 당하는 집단성원’ 혹은 ‘따돌림 현상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러한 ‘왕따’ 현상은 아이들 집단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인 집단, 예를 들면 직장이나 사회 단체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회 일반 현상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따돌림 현상을 ‘있을 수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확인하는 사실 규명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해석적 차원에서 시도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때 ‘집단 따돌림’에 대한 가치판단이 좀더 명확하게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 설득력을 갖을 수 있고 그들의 자발성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집단 따돌림’이 갖는 사회·윤리적 가치의 한계성을 밝히며, 둘째, 문화적 격차와 문화차이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현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해 보며, 셋째, 각 유형별 ‘집단 따돌림’에 대처한 올바른 청소년 지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앞에서 제기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첫째,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 번지고 있는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한 연구실태와 그러한 연구들이 갖는 의의를 제시해 보고, 아울러 그 한계점 역시 따져보았다.

둘째, 문헌분석을 통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집단 따돌림이 갖는 사회·윤리적 한계를 짚어보고,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와 문화적 결핍(cultural deprivation)에서 오는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의 특징을 상호·비교해 보았다.

셋째, 선행연구의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집단 따돌림’을 예방 혹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3) ‘집단 따돌림’에 대한 선행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집단 따돌림’의 개념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와 비교적 활발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집하여 분석하였던 연구물들이 갖는 일반적인 의의와 한계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먼저 그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연구물의 분석을 통해 ‘집단 따돌림’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

둘째,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다양한 은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 따돌림을 지칭하는 말로 ‘왕따’가 널리 사용되어서, 이제는 왕따는 은어가 아닌, 일반인들의 일상어가 되어버린 듯하다. 그 이외에도 ‘왕따’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은어로서는 ‘생까(무시하기)’, ‘산탄다’(애를 때리러 간다)’, ‘뒷달간다(뒤에서 욕한다)’, ‘쫓주다(창피주다)’, ‘딱으론다(화난다)’, ‘갈구다(시비 붙다)’, ‘까대다(말대꾸하다)’, ‘다구리(집단 구타)’, ‘씨빠빠(순진하고 개성이 없는 아이들)’, ‘생까다(모르는 체하다)’, ‘빼꾸(육체적

으로 성치 않은 사람), ‘살까다(소름끼친다)’, ‘사발치다(거짓말하다)’, ‘물갈이하다(후배들을 구타하다)’, ‘뺨(선배)’, ‘짱들이(짱을 보좌하는 아이)’, ‘담탱이(담임선생님)’, ‘쌩구라(거짓말)’, ‘후까시까다(말로 겁주다)’, ‘쩌다(도망하다)’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집단 따돌림은 특정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닌, 지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청소년 집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현상이 되고 있다.

넷째, 집단 따돌림은 발생시기에서는 중학생,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집단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기 중간보다는 신학기 초인 학년이 바뀔 때 더 많이 나타난다.

다섯째, 집단 따돌림 현상이 직접적으로 그 현상이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에 함께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심리상태 혹은 행동적 특성에 기인함을 분석해 내고 있다. 즉 특이한 외모나 환경을 가진 청소년(예를 들면 장애자나 불우한 청소년 등)이나 별난 행동유형을 견지하는 청소년(예를 들면 잘난 체 한다던가 하는 등)과 이를 수긍 혹은 용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충돌한 결과, 나타나는 것이 ‘집단 따돌림’이다.

여섯째, ‘집단 따돌림’을 확인할 수 있는(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시키는) 청소년들의 행동적 특성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즉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의 행동적 특성으로는 튀는 행동(잘난 척, 착한 척, 예쁜 척 하는 등)을 취하는 경우,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는 경우, 솔직하지 않은 경우, 말·행동이 이상하고 눈치가 없는 경우, 소극적이고 말이 없으며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 지능이 낮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따돌리는 청소년의 행동적 특성에는 자주 화를 내거나 과격한 행동을 취하는 것, 학교의 공식적인 활동에 참가를 꺼리는 것, 다른 친구들의 소지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왕따 친구에 대해 자주 얘기는 하는 것, 참을성이 부족하고

천박한 말투를 구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일곱째, 따돌림 현상에 대처하는 미시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당사자들 차원에서, 학교(조직) 차원에서, 그리고 가정 차원에서 각각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개선 해야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물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대개의 연구들은 집단 따돌림에 대한 윤리적 가치 분석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즉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집단 따돌림이 청소년 집단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집단 따돌림에 대해 현상적 분석에 치우치고 있다. 집단 따돌림은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아왔던 개인 대 개인, 집단 대 개인이 특정의 상황에서 서로가 살아왔던 삶의 유형을 견지함으로 나타나는, 문화 충돌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관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집단 따돌림에 관여하는 자의 행동을 수정시키는 데는 상담 활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문제가 발생케 되는 사회여건들을 그대로 두면서 문제자의 행동만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문제상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집단 따돌림이 있어나는 사회 문화적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이를 분석·수정해야만 누구라도 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

넷째, 개인이 견지/유지하는 태도와 인간관계는 그가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볼 때, 특정 집단 따돌림 현상을 중심으로 한 개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4) '집단 따돌림'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한 사회현상의 발생을 적절하고/정당하고 혹은 부적절하고/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는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집단 따돌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집단 따돌림은 틀림없이 구성원들 사이에 불평등을 갖다 주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명제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평등은 자유와 함께 인간이 인간됨을 실현하는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 중의 하나이다. 이 때 평등이라는 말은 성질 또는 특성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우를 지칭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명제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모든 인간은 같은 종(species)의 같은 구성원이다.

둘째, 같은 부류(class)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균등하게 취급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하고도 좋은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꼭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평등의 가치에 따라 인간이 모인 크고 작은 집단 속에서는 인간은 스스로 균등한 배분(equal distribution), 균등한 대우(equal treatment), 균등한 권리(equal rights), 균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로 나타나는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집단 속에서 “복수 또는 개인이 약자를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신체적·정신적 공격”으로 개념 지워지는 집단 따돌림 현상은 결국 집단 성원간의 불평등한 관계구조를 낳게 만들며, 이는 결국은 평등의 이념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일차적으로 어떠한 인위적인 이유나 환경의 여건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의 기회가 활용되는 데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이 집단 따돌림 현상을 통해 깨뜨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따돌림이 갖는 부당성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강자 혹은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들)의 약

자에 대한 군림의 한 표상인 집단 따돌림은 평등의 궁극적 가치인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측면에서 평등의 가치, 정의의 가치를 깨뜨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탈리히의 본질적 정의론(intrinsic justice)에 비추어서 ‘집단 따돌림’ 현상이 수반하는 부당성이 지적될 수 있다. 인간 모두는 서로가 스스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으며 인간의 삶은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자기 존재를 실현하고자 하는 각자의 요구는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는 평등한 권리이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의가 된다.

자아실현은 개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개인은 자기중심을 가진 자아로서 자기 존재를 실현하는 주관적 인격체이면서, 인격이 서로 만나는 인격공동체 안에서의 인격체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자아실현의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나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평등도 자아를 바르게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요체로서 언제나 상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호성이 보장될 때 바로 사회 정의의 기반이 확립될 수 있다. ‘집단 따돌림’은 집단 성원들 서로가 평등에 기초한 자아 실현의 상호성을 부인하며, 관계의 편중성을 일으키어 결국은 사회를 정의롭지 못한 상태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집단 따돌림’이 갖는 부당성이라 할 수 있다.

5) 다양한 문화의 관점에 본 ‘집단 따돌림’

문화에 대한 정의는 문화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만큼이나 다양하다. 문화의 정의가 다양함은 문화가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의와 의미를 지닌 문화를 하나로 종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젠크스와 톰프슨이 범주화하고 있는 문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에 대한 개념을 요약해 보았다.

문화에 대한 정의와 분류 방법에 관련한 젠크스와 톰프슨의 견해에 비추어서 볼 때 문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문화가 갖는 기능성↔상징성, 혹은 구체성↔추상성을 강조하는 양극의 축을 중심으로 보편주의적 문화관, 상대적 다원주의 문화관, 사회제도화된 문화관, 이데올로기 문화관 등으로 패러다임화할 수 있다.

첫째, 보편주의적 문화관의 입장에서 볼 때 ‘집단 따돌림’은 구체적인 기능성을 강조하는 문화체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따돌림을 시키는 입장과 이를 방관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집단 유지에 있어서 서로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배분되어 있으나,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에서 있는 개인 혹은 소수 성원은 역할수행의 불안정 속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 제도화된 문화관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일탈 집단에 의한 비행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회조직은 스스로가 유지되어야 할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된 실현절차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규정된 목적과 조직운영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도 역시 일탈된 집단의 성원이요 그 행위 자체가 비행행위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데올로기 문화관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다수의 지배집단이 나름대로는 강한 주체성을 지닌 개인/소수를 억압하려는 갈등적 구조가 바로 ‘집단 따돌림’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집단 따돌림’은 조직 내의 상대적으로 작은 소집단들이 조직 내에서의 집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다툼의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상대적 다원주의 문화관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 따돌림’ 현상은 각각의 문화를 갖는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해 가는 한 형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어쩌면 이러한 관점에서는 ‘문제의

시각에서 상황을 보기 때문에 상황이 문제로 보인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6) 문화적 격차 대 문화적 차이

조직 성원의 서로 다른 삶의 유형을 문화격차와 문화상대주의 중 어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삶의 유형을 문화적 격차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차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에 대한 접근과 해석은 다양하다. 이는 각자의 관심을 어디에 맞추느냐 따라(예컨대 사회나 지식이나 또는 행동이나)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의 개념을 i) ‘관념’ 혹은 ‘정신적 세련됨’ ii) 환경에 대한 ‘적응체계’ 혹은 ‘공통의 삶의 양식’, iii) 사회의 ‘구조체계’ 혹은 ‘조직체계’, iv) 사회성원들의 행동을 유도 규제 해석하는 ‘상징체계’, v) 특정 집단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등의 관점의 선택일 수 있고, 문화의 패러다임으로 기능성 vs. 상징성, 구체성 vs. 추상성에서 어느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개념의 다양성과 문화패러다임의 양면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성원들이 갖는 문화는 그 속성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기능성(공통성)과 상징성(상대성)을 지니고 있다. 즉 문화란 특정 집단 개개인의 삶을 유지시키는 토대(기능성: 식생활의 방식, 생활기술, 물질활용 등)이기도 하고, 특정 집단 성원을 다른 집단 성원으로부터 구분시키는 집단 성원의 독특한 삶의 방식(종교, 가치, 관습, 신념, 언어 등)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의 기능성(공통성)과 아울러 문화가 갖는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양한 삶의 유형을 지향하려고 하는 소집단들이 한 조직 내에 서로 공존할 때 그 소집단들은 서로 경쟁과 갈등의 관계를 유지한다. 경쟁관계

는 한 삶의 유형을 지향하는 소집단이 다른 삶의 지향하는 소집단에 대해 우위적 입장을 견지하려고 하지만 상대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된다. 이에 반하여 갈등관계는 상이한 삶의 유형을 지향하는 두 개 이상의 소집단 서로가 다른 삶의 유형을 갖는 상대 집단을 인정하지 않고 그 관계는 지배-종속관계로 해석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결국 각 소집단들이 질적으로 다른 문화를 가지는 경우에는 절대적인 비교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 격차를 판단할 수 없고 각 집단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충분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문화적 격차를 인식할 수 없다.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비롯되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집단 따돌림'이 문화적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를 밝히는 일과 같다. 또한 이는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 기능적 지배 사회인가 아니면 서로간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기능·계층적 사회인가를 밝히는 문제와 같다.

기능적 지배사회는 보편주의 문화관과 제도화된 문화관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로부터 또한 문화적 격차 현상이 나타난다. 예전에는 실리보다는 명분, 외모보다는 내면을 강조하는 교양적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영역과 지위를 불문하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실리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물질적 획득과 육체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구주의가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도구주의 사고는 학교에서 성적지상주의 가치를 만연시켜 오로지 성적에 의한 기능성만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말았다. 성적만이 유일한 가치 판단이 되는 학교조직에서는 누군가가 일등이 되면, 누군가는 꼴찌의 입장에 서야만 되는 제로섬 게임의 상황하에서는 이해, 협동, 공존의 상생적 가치보다는 소외, 이탈, 지배, 압도 등과 같은 부적응 혹은 이탈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위주의

사회로부터 문화적 격차 현상이 일어나고, 기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지배적 집단이 그렇지 않은 개인/소수를 따돌리는 것이 ‘집단 따돌림’이다.

이데올로기 문화관과 다원주의적 문화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집단 따돌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수로 구성된 평균적인 소집단이 개인/소수의 강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은 양자 중 어느 한쪽의 행동에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결국은 조직의 역동성이 발휘되며 조직의 발전을 가져가 줄 수 있다.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집단 따돌림’을 그렇게 크게 문제시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나를 남과 구별시키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는 본능일 수도 있고, 사회적 경험과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의 기능성과 상징성을 학교에서 똑같이 성취하는 데는 늘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는 기능성을 강조하는 지배집단 위주로 운영되어서 언제나 소수집단들이 갖는 그들만의 상징성을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개인/소수집단은 기능성의 습득에서는 늘 뒤떨어지기 마련이며, 그들만의 상징적 세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 또한 학교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수 집단의 상징성(생활유형, 노력의 방법, 의·식·주에서의 선택취향 등)이 인정될 수 있는 다원적 가치체제가 학교에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학교생활은 그들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곳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기능적 학교문화는, 그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일단 한번 따돌림을 당한 개인/소수집단을 더욱 따돌리는 ‘빈익빈 부익부’의 효과로 인해 ‘기능적으로 잘 적응하는 자는 그로 인해 차후에도 더 잘 적응해 나갈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로 인해 기능적 학교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해 갈 가능성이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7) 예방책

다른 청소년문제와 마찬가지로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도 먼저 그러한 병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크게 요구된다. ‘집단 따돌림’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은 ‘집단 따돌림’이 갖는 비윤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단 따돌림’ 현상을 소위 ‘왕따’로 지칭하면서, 왕따가 코메디 프로의 한 장면처럼 모두에게 한바탕 웃음을 주는 재미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왕따라는 말 자체가 ‘집단 따돌림’을 희극화하여 부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전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이 갖는 비인간성, 사회적 관계의 부정의성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관을 확립해 갖도록 해야 한다.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유지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따돌리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지만 꺾치 못해 ‘따돌리는’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내면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며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주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집단 따돌림’은 따돌림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됨으로써(특히 ‘따돌림’의 피해자 입장에서) 스스로를 확대시켜 더 악화된 상황(예를 들면 자살을 시도한다던가)으로 내모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자기의 특성으로 인해 자기와 모든 조직성원을 더 높이 고양될 수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과열되어 있는 경쟁의식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입시제도가 계속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성취지향적 사회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본격적인 사회활동이 유예되어 있는 청소년층에 있어서는 성취를 향한 열망은 학업경쟁으로 부추겨지는 경우가

일반이다. 학업성취의식이 철이 들면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가정 및 학교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주입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방과후 활동 혹은 특기적성 교육을 계획대로 활성화하여 학업 성취에 의한 과열된 경쟁을 둔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집단 따돌림’은 근본적 청소년들간에 ‘공동의 관심 영역’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임의활동과 고유활동에 그들의 시간을 할애 할뿐만 아니라 수련활동의 절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과 그에 따른 놀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집단 따돌림’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관심부족’과 ‘무너지는 가정’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평소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하여 자녀에게 의·식·주를 확보해 주는 부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부모의 자질을 개발해 주고, 가정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의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 먼저 있어서 그것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이미 있는 ‘집단 따돌림’과 비슷한 병리현상이 학교 상황에 투영되어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부정의가 줄어들도록 사회정화가 이루어지거나 사회현상이 학교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들의 신뢰성, 정직성,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 함양될 수 있도록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8) 대 책

학교에서의 대책

① 토론을 통한 ‘집단 따돌림’의 이해: ‘집단 따돌림’에 대해 드러내 놓고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이 현상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집단 따돌림’이 사회조직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각자의 얘기를 하게 함으로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당하는 입장, 그리고 방관자의 입장들이 드러나게 되고, 교사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단호한 의미가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② 학급 내 소집단 활동 활성화: 한 학급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구분하여(현재의 자리 배치에 의한 1, 2, 3...분단과 같은 분단구분이 아니라), 소집단별로 방과후 혹은 주말 활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소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수립·내용구성 하는 데 지도와 자문을 제공한다.

③ 놀이·수련활동 활성화: 수련전문활동가를 초빙하여 함께 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 이는 일시적인 행사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 혹은 이 주일, 한 달의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련 전문 활동가를 초빙하는 프로그램을 놀이 프로그램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 예능활동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함께 하는 단체활동을 통해 집단 유대감이 증진될 수 있다.

가정에서의 대책

① 피해자인 경우: 자신감을 갖도록 배려할 것: 벽돌의 크기가 서로 다름에 따라 그 배열이 잘 안 맞춰질 수 있듯이 인간의 삶의 유형 또한 역시 그럴 수 있음을 이해시키고 현실을 수긍하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여 교사와 상의한 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여행 다녀오기”를 실천해 본다.

② 피해자인 경우: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

: 따돌림을 당한 자녀를 둔 부모는 일단 자신의 자녀 양육방식에 결점이 있음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 후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정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가정의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③ 가해자인 경우: 집단 따돌림의 폭력성을 인식시킴: 물리적 폭력만이 한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따돌림도 심각한 정신적 폭력임을 확실히 인식시킨다. 부모가 따돌림을 시키는 자녀에게 엄하게 체벌을 주며, 육체적 고통을 정신적 고통으로 체험하도록 한다.

④ 가해자인 경우: 본인이 따돌림을 시킨 피해자를 집으로 초청하게 하기: 본인이 따돌림을 시킨 친구를 집으로 초청하도록 설득하고, 중재하고, 기회를 마련해 준다. 결국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의도적인 친밀성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임을 깨닫게 한다.

언론 및 일반 사회에서의 대책

① 매스컴 보도의 자제: 집단 따돌림을 희화화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말고, 방영하지도 않는다. 최근 방송가에서는 일본 TV 방송에 퍼져있는 연예인 골탕먹이기, 사생활 들추기 식의 프로그램이 전혀 걸리지 않은 채 그대로 모방하면서 방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를 다시 모방하면서 왕따놀이, 왕자병, 공주병 등으로 이어지는 ‘왕따’ 만들기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② 청소년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최근 들어 스타 청소년들의 방송 출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반 청소년들의 허황된 모방심리와 심리적 박탈감이 부풀어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학업과 인간관계를 무시하고도 “뜨기만 하면 된다”식의 메시지를 청소년에게 주는 청소년의 방송 출현은 한 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③ 입시경쟁문화의 개선: 소수의 성공자와 다수의 실패자를 주조하는 듯한 현재의 입시제도는 아이들의 정서를 황폐화시킨다. 옆의 친구는 나

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벗이 아니라 sso가 어떻게든 덩고 일어서야 하는 극복의 대상, 타도의 대상, 수단 등으로 간주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따돌림’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학생들을 탓하기 전에 집단 따돌림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환경 속에서 낳은 역기능임을 인정해야 한다. 어른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바로 아이들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고, 당장 아이들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지도

2. 결 론

첫째, 이 연구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사실 판단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하는 가치 판단의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집단 따돌림은 틀림없이 구성원들 사이에 불평등을 갖다 주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명제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평등은 자유와 함께 인간이 인간됨을 실현하는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 중의 하나이다. 이 때 평등이라는 말은 성질 또는 특성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우를 지칭한다.

둘째,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집단 따돌림’은 문화 자체를 해석하는 페러다임에 따라 그 지닌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① 보편주의적 문화관의 입장에서 볼 때 ‘집단 따돌림’은 구체적 기능성을 강조하는 문화체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현상이라 할 수 있다. ② 사회 제도화된 문화관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일탈 집단에 의한 비행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회조직은 스스로가 유지되어야 할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된 실현절차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규정된 목적과 조직운영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적어도 공식적 조직 중에서 ‘집단 따돌림’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도 역시 일탈된 집단의 성원이요 그 행위 자체가 비행행위라 할 수 있다. ③ 이데올로기 문화관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다수의 지배집단이 나름대로는 강한 주체성을 지닌 개인/소수를 억압하려는 갈등적 구조가 바로 ‘집단 따돌림’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집단 따돌림’은 조직 내의 상대적으로 작은 소집단들이 조직 내에서의 집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다툼의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④ 상대적 다원주의 문화관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 따돌림’ 현상은 각각의 문화를 갖는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해 가는 한 형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어쩌면 이러한 관점에서는 ‘문제의 시각에서 상황을 보기 때문에 상황이 문제로 보인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셋째, 획일적 문화관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조직에서는 집단 성원들에게 유일한 문화유형(기능성 위주의 문화)을 따르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리고 그 유일한 문화유형에 가담하는 정도에 따라 문화적 격차(cultural deprivation)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다원적 문화관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조직에서는 집단 성원들이 나름의 문화유형(상징성 위주의 문화)을 추종할 수 있게 됨으로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집단 따돌림’은 획일적 문화관과 사회제도적 문화관의 패러다임에서 볼 때는 문화적 격차현상에 일어나는 사회현상이며, 이데올로기 문화관 및 다원주의적 문화관의 패러다임에서 볼 때는 문화적 차이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집단 따돌림’에 대한 대처 방안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수련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주)가우디(1999). 왕따 리포트: 왕따 실태, 원인에서 해결방안까지. 서울: 우리 교육.
- 김문조(1997). “정보문화와 고요문화: 갈등과 통합의 변증법” 글로벌 정보네트워크 사회의 의미와 전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 김문조(1999). “집단 따돌림 발생의 사회·문화적 접근”, 집단 따돌림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
- 김준한(1999). “표현, 대화, 토론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 청소년의 또래관계.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창남(1995). “청소년집단의 하위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언론 제5호. 서울:한울
- 모기유따까(1996). 이지메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명진(1993). “정보격차와 세대차이”: 정보화 사회와 사회윤리.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박진규(1997). “대학구성집단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논문집(제16집).
- 박진생(1999). “청소년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영향은 무엇인가?": 청소년 집단 따돌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서울가정법원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 손충기 외(1999). 전라북도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전라북도 청소년종합상담실.
- 아더 엠. 오쿤(1989). 평등과 효율(이영선 역). 서울: 현상과 인식.

- 원용진(1996).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 이기문, 김진희(1999). 혹시, 우리 아이 왕따 아닐까. 국일미디어.
- 이규미(1998).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왕따 현상,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이종원 편(1998). 일본 청소년 이지메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재, 박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아산 사회복지재단
- 조용수(1996). 한국의 신세대 혁명. 서울: 엘지 연구원.
- 주성욱(1999). “왕따”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광명시청소년 상담실.
- 최충욱(1999). “청소년기 왕따 현상의 실태와 대응방향”: 청소년왕따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서울: 홍사단.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5). 정보화 사회에서 건전 청소년 문화 육성방안. 서울: 문화체육부.
- 한국사회이론학회(1989). 평등문제와 우리사회. 서울: 현상과 인식.
- 황성숙(1998). “학교내 집단괴롭힘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ourdieu, P.(199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옮김, 서울: 새물결.
- Lecht, J.(1996). 문화연구를 위한 현대 사상가 50인. 박동훈, 김시무 옮김, 서울: 현실문화연구.
- Lecht, J.(1994).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 옮김, 서울: 현실문화연구.
- T.Takuma(1999). 왕따·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일본 동경 국제대학 T.Takuma 교수초청 한·일 학술대회.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경향신문, 1998.6.21.
- 중앙일보. 1999.4.6.
- 중앙일보, 1999.4.15.

중앙일보, 1999.5.12.

한계레신문(사회), 1998.12.28.

한국경제신문, 1999.3.16.

Adams, Gerald and Thomas Gullotta(1983). *Adolescent Life Experience*.
Monterey,CA :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Asher, Steven and John D. Cole(1990). *Peer Rejection in Childhood*.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Chasdi, E. H., ed.(1994). *Culture and Human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Riesman, F.(1962). *The culturally deprived child*. New York: Harper &
Row.

Rubenstein, D., and C. Stoneman eds.(1977). *Education for Democracy*.
London : Collier Macmillan.

Keddie, N.(1977). *Tinker, Tailor... the Myth of Cultural Deprivation*.
Harmondsworth : Penguin.

Merton, Rbort(1973). *The Sociology of Scienc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Rainer K. Silbereisen and Eberhard Todt ed.(1994). *Adolescence in
Context*. New York : Springer-Verlag.

Smith, P.K., Helen Cowie and Lucia Berdondini(1994). "Co-operation
and Bullying", Peter Kutnick and Colin Rogers. *Groups in
Schools*. London : Cassell Villiers House.

Thompson J.B.(1990). *Ideology and Modern Culture*,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Abstract

A Research Study on Peer Rejection(WWang-dda Phenomenon) among Adolescent Groups in Socio-Cultural Approach

Park, Jin-Kyu

The peer rejection(WWang-dda Phenomenon in Korean), which is defined as physical and mental harrassment by the strong person or majority group against a weak person or the minority in a continuous and persistent way, is emerging a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e Korean school society. So, to the same degree, the peer rejection has attracted many people's concerns and has become a most popular topic of many research works in the academic circle these days.

So far, most of the academic research works have focused on verification of the facts that 'peer rejections' are dominant phenomena in various kinds in most adolescent groups. However, this research was uniquely focused on evaluation of 'peer rejection' phenomenon in the light of social justice. In more detailed terms, the research work has the following goals:

Firstly, to analyze and evaluate the results of the major research works by the some distinguished scholars, which are appearing recently;

Secondly, to construct some ethical criteria to judge the peer rejection as the injustice things;

Thirdly, to interpret the peer rejection in the different cultural paradigms, and to find the different meanings in accordance with the various cultural paradigms;

Fourthly, to compare two distinct kinds of peer rejections, that is, one kind resulted from cultural deprivation, the other resulted from cultural difference.

The methodology of the research work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literatures. Some findings of this research study are as follows.

1) Most of the research works presented so far, have contributed to clarification of the concepts of 'peer rejection phenomenon', and to verification of 'peer rejection' phenomenon as the real things in the adolescent groups these days. However they had some limits in establishment of some ethical criteria for judging the moral value.

2) The peer rejections are not acceptable as the right things, not because many people say 'no', but because the peer rejections are violating the unchangeable proposition, "every human being be equally treated."

3) The peer rejection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in accordance with cultural paradigms. In view of functionalists or universalists, the peer rejections result from the pre-dominant phenomenon of ruling majority group over maladjusted ruled minority in the name of function. In view of institutionalization paradigm, the peer rejection can be interpreted as a juvenile delinquency. In view of ideological paradigm, the peer rejection is one of conflicts among the different ideological groups in a certain society. In pluralist cultural

view, the peer rejection is no other than a usual happening in a certain society, where many people having different kinds of cultural background get together. So the peer rejection could be regarded as a problem, only in case that the interpreter names it a problem.

4) There are two types of peer rejections, each of which has been originated from different situations; one from cultural deprivation, the other from cultural difference. In the same way, the cultural deprivation is a social phenomenon based on the functional and institutional paradigms, and the cultural difference came from the ideological and pluralistic paradigms.

5) It is more desirable to take the preliminary measures for the peer rejections, rather than to take the remedial ones against the peer rejections. And it is quite needed to launch the co-operative programs arranged by home, school, and society, to diversify the cultural paradigms.